

윤석민 무한질주 ... 8승 쾌투

이재주 연일 홈런쇼 ... KIA 삼성 꺾고 3연승

‘에이스 윤석민의 거침없는 질주’ KIA 타이거즈가 6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삼성 라이온즈와의 6차전에서 윤석민의 호투에 힘입어 5-3으로 쾌투의 3연승을 이어갔다.

선발 윤석민은 7이닝 동안 4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지난 5월 3일 롯데전에서 6연승 행진을 펼쳤다. 이날 타선의 도움으로 1승을 추가한 윤석민은 시즌 8승3패로 다승부문 단독 1위에 올라섰다. 평균자책점은 2.84에서 2.71로 낮아졌다.

KIA는 1회 중전안타로 출루한 이용규가 이재주의 희생 플레이 때 홈을 밟으며 1점을 먼저 뽑았다. 선취득점을 기록한 이용규는 2

회 2사 1·3루에서 1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초반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2-0으로 앞서나가던 5회에는 승부에 쐬기를 박는 이재주의 홈런포가 터졌다.

전날 한화와의 경기에서 통산 2호째 만루 홈런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던 이재주는 5회 윤성환의 체인지업 받아 비거리 130m의 장외홈런을 때리면서 이를 연속 홈런쇼를 펼쳤다.

KIA는 홈런의 기세를 몰아 이어진 1사 만루에서 차일목의 2타점 2루타로 5-0까지 앞서나가며 기선을 제압했다.

8회 위기 상황에서 마무리 한기주의 위력이 발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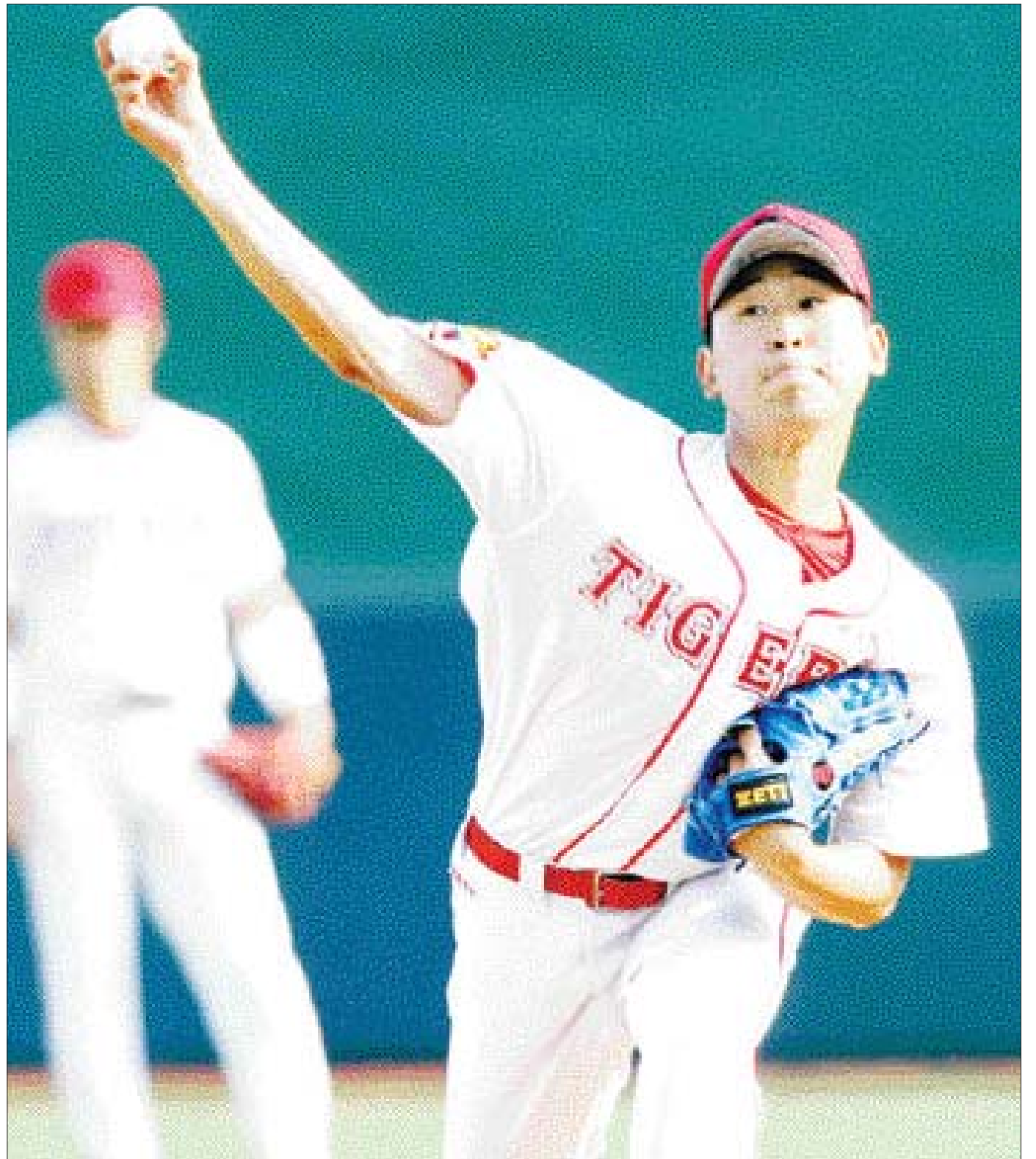
한기주는 볼넷과 안타를 맞으며 1점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최영우의 투수 앞 땅볼 때 홈으로 들어오던 양준혁을 포스 아웃 시킨 뒤, 강봉규를 삼진 아웃으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마무리 지었다.

한기주는 삼진 2개를 추가하며 14세이브를 기록했다.

KIA는 투·타의 고른 활약으로 ‘만원 징크스’에서도 탈출했다.

이날 휴일을 맞아 많은 야구팬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무등경기장은 경기 시작 15분 만에 매진(1만4천300석)을 기록했다. 앞선 4번의 만원 경기에서 4패를 기록했던 KIA는 11개의 안타로 화려한 타격쇼를 선보이며 ‘만원 징크스’에서 벗어나 3연승을 이어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2008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윤석민이 역투하고 있다. 이날 윤석민은 7회까지 1실점했고 5-1 리드를 지켜낸 채 내려갔다. 윤석민은 이날 승리로 8승을 챙겨 다승 선두에 올랐다. /연합뉴스

홈런포 장착 주말 2연전도 싹쓸이 나선다

KIA, 리마·서재응 사자사냥

KIA 타이거즈가 주말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불붙은 방망이와 노련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3연전 싹쓸이에 나선다.

타격에 불이 붙었다. 지난 4, 5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이를 연속 만루홈런이 터져나오는 등 소총군단 KIA 타선에 홈런포가 장착됐다. 6일 현재 이용규(0.315), 이종범(0.317), 장성호(0.368), 이재주(0.331), 김원섭(0.333), 최경환(0.362) 등 6명의 타자가 3할의 타율을 보이며 KIA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다.

‘스나이퍼’ 장성호는 지난 25일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며 만루홈런을 포함해 홈런 2개를 쏘아올렸다. 지난날 10일 마수걸이 홈런을 날렸던 이재주는 8개의 홈런으로 팀내 1위다. 5일 한화전에서 통산 2번째 만루홈런을 기록한

이재주는 6일 삼성과의 경기에도 솔로포를 터트리며 이를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공격의 물꼬가 트인 KIA는 주말 노련한 리마와 서재응이 삼성 사냥에 나선 전방이라 마운드에도 한결 여유가 생겼다.

퇴출설에 시달렸던 리마는 최근 5경기에서 3.33의 평균 자책점으로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안정된 투구를 보이고 있다.

부상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서재응도 8일 삼성 사냥에 나선 전망이다. 5일 한화전 등판을 목표로 컨디션을 조절했던 서재응은 투구밸런스가 맞지 않아 등판을 잠시 연기했다.

주중 5위 한화와의 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중위권 진입에 한발 더 다가선 KIA는 연이틀 터진 만루홈런에 힘입은 상승세로 6일 4위 삼성에게 5-3으로 이기며 4위와의 격차도 4게임차로 줄여놓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요르단전을 하루 앞둔 6일 오전(한국시간) 요르단 암만 부근 알살트 축구장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강도 높은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믿을맨’ 박지성 공격 총지휘

오늘밤 요르단과 월드컵 축구 예선 허정무 감독, 전술 변화로 필승 작전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주영(23·FC서울)이 4경기 연속 무승부의 수렁에 빠진 허정무호의 특급 해결사로 호흡을 맞춘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 요르단 암만 킹 압둘라 스타디움에서 중동의 북방 요르단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4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허정무호는 3차 예선에서 1승2무(승점 5, 골득실+4)로 북한(승점 5, 골득실+1)과 동률을 이루고 있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불안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대표팀은 이번 요르단과 4차전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 무승부 행진을 마감하고 투르코메니스탄 원정(14일)까

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지난달 31일 요르단과 치른 3차전 홈 경기에서 두 골을 앞서고도 수비 난조로 내리 두 골을 내주며 비겼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터라 이번 ‘리턴 매치’를 통해 화려한 골잔치로 축구팬들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할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태극전사들이 상대할 요르단(1승1무1패, 승점 4)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0위로 한국(45위)보다 객관적 전력에서 한 수 아래지만 3차전에서 뛰어난 역습 능력을 보여줬던 만큼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특히 지난 3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6분 교체 투입돼 두 골을 터뜨렸던 공격형 미드필더 안상익과 파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



수적이다.

지난 4일 요르단에 도착해 현지 적응훈련을 끝낸 허정무 감독은 ‘베스트 11’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팀 전술 변화의 핵심은 ‘믿을맨’ 박지성의 임무 변화다. 3차전에서 왼쪽 공격수로

나섰던 박지성이 처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공격의 ‘키맨’ 역할을 맡기로 했다.

허정무 감독은 4-3-3 전술을 기본으로 박주영(서울)을 왼쪽으로 내세우고 돌파력이 뛰어난 이근호(대구)와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는 설기현(풀림)을 좌우 공격수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지성이 중앙에서 공격 조율을 하고 김남일(빛합 고베)-조원희(수원) 커플이 ‘더블 볼탄데’로 나서 공격진을 떠받친다. 포백 라인의 변화도 눈에 띈다. 경험 많은 수비수 이영표(토트넘)가 왼쪽 풀백으로 수비라인을 리드하는 가운데 3차전에 나섰던 이정수(수원) 대신 강민수(전남)가 광희주(수원)와 함께 중앙 수비를 맡고 오범석(사마라)이 오른쪽 풀백으로 나선다.

골키퍼는 ‘이운재 사면론’으로 심적 부담을 떠안은 김용대(광주)보다 손가락 부상을 벗어난 정성룡(포항)이 선발로 나서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지성 “골 욕심 버리고 희생 각오”

“승리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있다.” 허정무호 공격전술의 핵심 역할을 맡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요르단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 4차전을 맞아 팀 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다.

박지성은 6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 부근 알살트 훈련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 역시 11명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승리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박지성은 “개인적으로 골 욕심을 내기보다는 팀 승리를 위해 경기를 풀어나가게 중요하다. 상대 수비가 나에게 집중되면 다른 동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며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박지성은 특히 “강팀이 되기 위해선 한 번 졌다면 반드시 다음 경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강팀이다”고 덧붙였다.



7일(토)
▲2008 프로야구(삼성 : KIA)(16 : 40·SBS스포츠), <두산 : LG>(16 : 50·X-SPORTS), <우리 : 한화>(16 : 40·KBS N SPORTS), <롯데 : SK>(17 : 00·MBC ESPN)
▲2008 프랑스 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결승(22 : 00·MBC ESPN)
▲2010월드컵 3차예선(대한민국 : 요르단)(11 : 20·SBS)

8일(일)

▲유로 2008(스위스 : 체코)(01 : 00·MBC ESPN), <포르투갈 : 터키>(03 : 30·MBC ESPN)
▲2008 PGA스탠포드 세인트주드 챔피언십3R (04 : 00·SBS스포츠·SBS골프)
▲2008 LPGA 맥도날드 LPGA챔피언십 3R (05 : 00·SBS골프)
▲2008 여자아시아안깅(20 : 50·SBS스포츠)
▲2008 프랑스 오픈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22 : 00·MBC ESPN)

9일(월)
▲유로 2008(오스트리아 : 크로아티아)(01 : 00·MBC ESPN), <독일 : 폴란드>(03 : 30·MBC ESPN)